

‘자일 파트너’ 김홍빈·김미곤

K2도 함께 올랐다

2007년 이후 등정자 없던

‘죽음을 부르는 산’

광주 산악인 2명이 성공

광주지역 산악인 2명이 5년 만에 K2(8,611m) 정상을 다시 열었다.

‘2012 김홍빈 K2 원정대’(단장 윤장현 광주전남비전1 이사장)에 따르면 김홍빈 대장(48)과 한국도로공사산악팀의 김미곤(40)씨는 지난 31일 오전 10시22분(한국시간 오후 2시22분) K2 정상에 달랐다.

‘죽음을 부르는 산’으로 불릴 만큼 험하기로 악명이 높은 K2는 지난 2007년 이후 약천후 등으로 등정자가 없었다.

김 대장과 함께 원정에 나선 배훈희(43) 대원은 이날 광주일보와 전화통화에서 “지난 30일 밤 10시 제4캡프를 출발한 두 대원이 12시간여만인 31일 오전 10시22분 정상을 밟았다”며 “대원들의 컨디션은 아주 좋은 편으로 현재 약천하게 하산중”이라고 밝혔다.

두 대원은 이날 중 제2캡프(6,700m)까지 하산해 1일 베이스캠프(5,000m)로 귀환할 예정이다.

지난 6월20일 출국한 대원들은 지난달 중순 제2캡프를 축출했으나 날씨가 좋지 않아 정상 도전에 어려움을 겪었다.

‘희망전도사’로 이름난 김홍빈



지난 31일 세계 2위의 거봉인 K2(8,611m) 등정에 성공한 김홍빈 대장이 정상 도전 직전인 26일 베이스캠프에서 성공적인 등반을 다짐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미곤씨.

대장은 지난 91년 북미 최고봉인 매킨리 등반도중 열 손가락을 모두 잃었으나 좌절하지 않고 장애인 최초로 세계 7대륙 최고봉 등정에 성공했다. 이어 히말라야 8,000m급 14좌 완등에 도전해 가서브룸Ⅱ 및 시장판마 남벽(2006년), 에베레스트(2007년), 마칼루(2008년), 다울라기리(2009년), 초오유(2011년)를 잇따라 올랐고 이번 등정으로 모두 7개봉 정상을 밟아 반환점을 돌았다.

2007년 국내에 처음으로 에베레스트-로체봉을 연속 등정한 김미곤씨는 초오유(2000년), 마칼루(2001년), 가서브룸Ⅱ(2006년), 다울라기리(2009년), 마나슬루(2011년)에 이어 히말라야 8,000m급 9

개봉을 등정하는데 성공했다. 특히 두 대원은 서로 생명을 의지하는 ‘자일 파트너’로서 가서브룸Ⅱ와 에베레스트, 다울라기리에 이어 이번 K2까지 4개봉 정상을 함께 오르는 감동을 연출했다.

이번 원정은 영산강사업 완공을 기념해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후원했으며, 김홍빈 대장은 영산강 자전거길 홍보대사를 맡고 있다. 대원들은 오는 20일께 귀국할 예정이다.

/정현식기자 who@kwangju.co.kr

전남 한우 20일까지 최대 47% 할인 판매행사

전남도는 한우고기 소비 확대를 위해 오는 20일까지 농·축협, 대형 유통 업소 등의 협조를 통해 대대적인 한우고기 특별 할인 및 저가 판매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내 농·축협 매장 등 52개소에서 판매하는 한우고기는 휴가지에서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는 ‘양념불고기, 국거리용 및 구이용 쇠고기’ 등으로 유통마진을 최소화 해 소비자에게 대비 20%~47%까지 부위별·품목별로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특히 불고기용은 한우고기의 맛을 살리기 위해 일정 기간 숙성된 쇠고기를 사용, 휴가지에서 간편하게 의해 먹을 수 있도록 양념소스와 함께 kg당 1만5000원에 판매한다.

또한 구이용(안심·등심·채끝 등) 및 양지 국거리 판매가격은 자율적으로 결정되며 최소 20% 이상 할인 판매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최근 한우 사육 두수의 과잉에 따른 가격 하락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전남도는

앞으로도 암소 감축 장려금 지원을 통해 1만7000마리를 감축하는 한편 유통업체 등과 연계한 할인판매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본사 인사

▲趙完男(서부취재본부 신안주재) : 정년면직 (7월 31일자)
▲李相先(서부취재본부 신안주재부장) : 8월 1일자)

정부 예타 통과…내년부터 4년간 786억 투입

6만6000㎡ 부지 성능연구개발센터 등 건립

전남도가 포뮬러원(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와 맞물려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온 ‘F1 서킷을 연계한 패키징 차부품 고급브랜드화 연구개발 사업’(일명 모터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이로써 F1 서킷을 주축으로 한 모터스포츠 산업이 국가사업으로 추진되며 국내 모터스포츠 산업 활성화와 세계 5대 자동차 생산국으로서의 위상과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1일 전남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전남도가 정부 지원을

얻기 위해 제출한 모터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대해 “사업 추진이 적정하다”고 최종 결론을 내리고 이날 도에 이같은 내용을 통보했다.

기재부의 이번 결정은 R&D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수행하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최종보고서 결과에 따른 것으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사업 추진의 적정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국가가 행·재정적 지원을 하게 돼 정책 추진의 동력을 얻게 된다.

이 사업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 영암군 삼호읍 일원 F1 경주장 인근 6만6000㎡ 부지에 총사업

비 786억원(국비 439억, 도비 178억, 민자 169억)을 들여 R&D 3대 부문 5개 과제와 성능연구개발센터 건립, 초고속 타이어 성능시험기 등 전용장비 도입, 평가기반기술 기준개발 등 산업기반 구축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이 사업은 F1 코리아그랑프리 개최에 따른 관련 산업화의 첫 사례이다. 도가 주도하는 국가 규모의 유일한 R&D 사업으로 타이어·휠·제동장치 등 3대 R&D 분야에만 연구개발 비로 417억원이 투입된다.

지식경제부와 전남도가 공동 추진하게 될 이번 국책사업 유지는 2년 연속 F1 대회 개최에 따라 모터스포츠 산업에 대한 국가적 관심과 필요성이 커진데다 전남이 국내 유일의 세계 최고 등급의 F1 경주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 전문가

들의 평가다.

전남도 안상현 기업도시과장은 “전남의 대형사업 상당수가 인프라와 정주인구의 부족 등 경제성 문제로 고배를 마시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업이 예타를 통과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며 “F1이 지역의 미래 신산업 육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준 단적인 사례”라고 밝혔다.

도는 이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경우 ▲프리미엄 자동차 부품의 수입 대체 효과와 수출 확대를 꾀할 수 있고 ▲국내 부품기업 매출액이 연간 22조원 가량 증대되는 것은 물론 ▲연간 500억원에 이르는 해외 F1서킷에서의 시험평가비를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광주문화재단·디자인센터·영어방송 경영 우수

광주시가 출자·출연한 지방공기업 가운데 광주문화재단, 광주디자인센터, 광주영어방송의 경영실적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는 지방공기업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12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를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인 10개 공기업 가운데 이들 3개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총 18개 지방공기업 가운데 10곳을 대상으로 2개월간 실시했으며,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검증된 한

국정책능력진흥원에 위탁 시행했다.

평가결과 광주문화재단은 ‘페스티벌 오! 광주 브랜딩’, 자발적 재능 기부단체인 ‘문화나무 예술단’ 운영 등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광주디자인센터는 ‘코리아 디자인 웹박람’의 국제 3대 공모전 수상과 ‘2011 광주 LED 디자인 어워드’ 개최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광주영어방송은 방송진흥사업 2회 연속 라디오부문 특별다큐 선정, 방송통신위원회 ‘이달의 좋은 프로’ 당선 등이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 나머지 7개 공기업은 ‘보통’ 평가를 받았다. /총행기자 redplane@redplane@

사직공원에 ‘빛의 타워’

광주시 설계공모 당선

광주시 사직공원 전망타워 설계공모작으로 ‘빛의 타워’(조감도)가 선정됐다.

광주시는 지난 31일 남구 사동에 있는 사직공원 내 기존 팔각정을 철거하고 전망타워를 신축하기 위한 건축설계공모 작품 심사에서 ‘빛의 타워’가 당선작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사직공원 전망타워 설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직국제문화교류타운조성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으로, 지난 5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 최종 승인을 통해 확정됐다.

광주공간건축사사무소에서 출품한 ‘빛의 타워’는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454㎡, 최고높이 34.7m 규모다. 내부에는 전망탑과 문화카페, 전시공간 및 옥상정원이 들어서며 16억5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오는 2013년 9월 완공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 사직공



원은 광주시민의 추억을 고스란히 간직한 광주의 명소”라며 “새로 들어서는 전망타워가 광주의 랜드마크로서, 빛의 도시이자 민주·인권·평화의 도시인 광주의 이미지를 잘 담아낼 수 있도록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총행기자 redplane@redplane@

광주시 6급이하 공무원 호칭 ‘주무관’ 통일

광주시의 6급 이하 공무원 호칭이 ‘주무관’으로 통일됐다.

광주시는 1일자로 ‘광주시 6급 이하 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규정’을 개정, 일반직과 기능직, 별정직, 계약직 등 공무원의 종류에 관계없이 6급 이하 모든 실무직 공무원들의 호칭을 주무관으로 단일화해 사용키로 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기존 광주시 직명제 운영규정에 따르면 일반직, 기능직, 별정직, 계약직 공무원 중 6급은 주무관, 7급 이하는 실무관으로 직급을 구분해 호칭이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은 직급간 차별을 부각시키는 느낌을 줘 뿐만 아니라 차석, 주사, 서기, 실무관 등으로 편의에 따라 다양한 호칭이 사용되어 왔다.

광주시는 시민들이 공무원 호칭 시각을 불편을 해소하고 직급 간 위화감을 없애기 위해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직종이나 직급에 상관없이 업무를 주관한다는 뜻을 담아 ‘주무관’으로 부르도록 대외직명을 개정했다.

광주시는 6급 이하 공무원 호칭이 사용되는 문화체육관광부 특수법인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서는 동학농민혁명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으로, 동학농민혁명 스토리텔링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제1회 동학농민혁명 스토리텔링 공모전

www.1894.or.kr

주관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협찬 : 문화체육관광부 전라북도

제1회 동학농민혁명 스토리텔링 공모전 [개요]

| ○ 공모주제 | ○ 접수 및 문의 |
|-------------------------|--|
| 역사와 함께하는 스토리텔링 ‘동학농민혁명’ | - 우편접수 : 580-833, 전북 정읍시 덕천면 동학로 742 (하학리 산8번지)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 |
| ○ 공모분야 | - 이메일 접수 : 1894@1894.or.kr 문 : Tel.(063)538-2996, Fax.(063)538-2893 |
| ○ 응모자격 | 동학농민혁명에 관심 있는 전 국민 |
| ○ 추진일정 | - 10. 8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홈페이지(www.1894.or.kr) 공지 및 개별통보 |
| ○ 시상내역 | - 시상 : 1. 대상 1명 (100만원) 2. 특별상 1명 (50만원) 3. 장려상 2명 (30만원) 4. 입상 2명 (20만원) |

○ 기타사항
- 시상 후, 기 발표 작품 및 저작권 치해 시비발생시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일상이 취소되며 상장 및 상금은 반환하여야 함
- 심사결과 및 시상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시상하지 않을 수도 있음
- 당첨작의 저작권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 있으며 접수된 작품은 반환하지 않음

국가 한문지도사자격 취득을 위한 연수생모집

1 연수일정 (2012년 제9기)

• 개강일시 : 2012. 9. 7(금) 기초A반 9:30, 기초B반 19:00
심화A반 9:30, 심화B반 19:00
• 대강장소 :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
• 모집기간 : 2012. 7. 16(월) ~ 2012. 8. 24(금)
• 수업기간 : 2012. 9. 7(금) ~ 2012. 12. 21(금) (총 90시간)
• 수 강 레 : ₩360,000

■ 모집인원 : 기초반 : A반, B반 각 30명
심화반 : A반, B반 (전급생과 편입생 약간명)

* 기초반 수료 정도의 실력이 인정되는 자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 면접 가능

■ 수업시간 : 매주 금요일, 토曜일

A반 : 금, 토 오전 09:30~12:30
B반 : 금 야간 19:00~22:00 토 오후 14:00~17:00

■ 수료 후 특전

- 1,2단계 연수과정 이수 시 총장 발급 수료증 수여
- 2단계 수료시 한문지도사 자격증 2개 동시 취득 기회 부여

<li